



박동원

조상우

(키움)

‘연봉 반토막’ 박동원·조상우 을 개막전 엔트리 합류할까

박동원(29)과 조상우(25·키움 히어로즈)의 2019년 연봉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참가활동정지가 해제됐고, 연봉 삭감 외의 추가 조치가 없으니 이들의 개막 엔트리 합류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키움은 13일 “박동원과 조상우의 2019년 연봉을 전년 대비 50% 삭감했다”고 밝혔다. 박동원은 1억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조상우는 1억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연봉이 반 토막 났다. 지난해 내려진 KBO의 참가활동정지 징계가 8일 해제됐고, 구단에서도 연봉 삭감 이외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원칙적으로 정규시즌 개막전부터 뛸 수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원정경기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신고 직후 KBO는 참가활동정지 징계를 내렸다. 반 년 이상 지속된 법정공방 끝에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에게 KBO가 징계를 이어갈 명분 또한 사라졌다.

구단은 KBO 상벌위원회 직후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징계에는 회의적이었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검찰의 발표 전에 KBO의 참가활동정지 징계로 나설 수 없었다. 활동정지 직후부터 연봉도 지급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 자체가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한 징계였다는 것이 키움의 해석이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95경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시즌 아웃됐다. 2018년 고과는 전무한 수준이다. 낮은 기여도에 징벌적 의미까지 더해 올해 연봉이 50% 삭감됐다.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구단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팬들과 동료에게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KBO와 구단의 조치를 달게 받겠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들은 2019시즌 종료 후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할 계획이다. 키움은 “앞으로 선수단 관리에 더욱 신경 써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 또한 KBO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 실천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익래 기자

“요즘요? 야구 공부에 푹 빠져 살아요”



송지만 전 키움 히어로즈 코치(46)의 음성은 선수 시절 훈련을 평평 터트렸을 때만 큼 밝았다. 야구팀에 오래 몸담은 선수들, 코치들은 팀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깊은 외로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속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등번호가 선명한 유니폼을 입고 십수 년을 보냈기

“키움과 결별…정든 팀 떠나 아쉬워
언제 또 유니폼 입는지 모르잖아요
타격·주루 등 나만의 매뉴얼 작성”

“요즘 공부해요~! 무슨 공부는 무슨 공부야. 당연히 야구 공부지. 하하하. 재미있어요. 코치를 오래 하지 않았지만 타격부터 주루, 외야수비까지 여러 파트를 해봤잖아요. 저만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동안 메모하고 기억해뒀던 것을 하나로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송지만 전 키움 히어로즈 코치(46)의 음성은 선수 시절 훈련을 평평 터트렸을 때만 큼 밝았다.

야구팀에 오래 몸담은 선수들, 코치들은 팀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깊은 외로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속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등번호가 선명한 유니폼을 입고 십수 년을 보냈기

때문이다. 송 전 코치 역시 무려 23년간 프로팀에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에 입단해 선수로만 18시즌을 뛰었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스프링캠프로 떠난 2월은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고독한 시간이지만, 송 전 코치는 씩씩했다.

지난해 시즌이 끝난 뒤 키움은 선수 시절 팀의 리더로서 크게 헌신했던 송 전 코치와 결별했다. 구단은 팀을 떠나는 것을 만류했지만, 서로가 원하는 역할이 많이 달랐고 결단을 내렸다. 송 전 코치는 “정기 깊어 팀이고 선수들과도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아쉽다. 그러나 팀이 원하는 역할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지금은 남아있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팀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망설이지 않았다”고 담담히 털어놓았다.

송 전 코치는 현역 시절 화통한 성격으로 선수단을 하나로 이끄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타격이론과 상대 투수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깊이 파고드는 또 다른 모습도 보여줬다.

2008시즌을 앞두고 현대 유니콘스가 해체돼 히어로즈에 인수됐을 때는 후배들의 방출을 막기 위해 프리에이전트(FA) 계약 포기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 해 깎인 연봉이 무려 3억8000만 원이었다. 이듬해 히어로즈는 새 구단 버스를 장만했는데, 후배들은 “저 버스가 다 지만이 형 깎인 연봉으로 산 것”이라며 애들러 고마움을 표현했다.

지도자로 변신한 뒤에도 송 전 코치는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조용히 헌신했다. 화려하게 포장되지 않았지만 타격과 주루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했다.

‘코치님’에서 ‘지만이 형’으로 되돌아온 송지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겠다. 선수 때 커리어는 은퇴하는 순간 그대로 과거일 뿐이다. 선수와 코치는 전혀 다른 직업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느꼈다”며 특별한 숨고르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롯데 수호신’ 손승락 “FA보다 V3”

4년 연속 투수조장…리더십 인정
두 번째 FA 앞두고 “팀이 먼저다”

“또 투수조장이 됐네요…”

롯데 자이언츠는 구단 역사상 ‘튼튼한 마무리’와 거리가 멀었다. 프로 원년부터 2015년까지 34년간 롯데 소속으로 단일 시즌 20세이브를 기록한 투수는 9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두 차례 20세이브를 기록한 투수는 김사율(2011년 20세이브, 2012년 34세이브)뿐이었다. 뒤편은 늘 롯데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하지만 손승락이 가세한 2016년부터는 이런 고민을 덜었다. 손승락은 2016시즌을 앞두고 생애 첫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4년 총액 60억 원에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현대 유니콘스부터 출발해 히어로즈 유니폼만 입었던 그의 야구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다. 손승락은 지난 3년간 166경기에 등판해 11승11패85세이브,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했다. 연령군 28세이브로 롯데 역사상 최고 마무리투수에 등극했다.

그의 역할은 마운드 밖에서도 무겁다. 이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투수조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졌다. 롯데의 2016시즌 투수조장은 김성배(은퇴)였으나, 부상과 부진으로 2군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었다. 자리를 비워줄 수 없었던 까닭에 당시 조원우 감독은 손승락을 투수조장으로 삼았다. FA 이적 첫해에 주장, 투수조장 등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손승락이 덕아웃에서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했다.

한 번 인정받은 리더십은 지금까지 이어

진다. 손승락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투수조장을 역임하고 있다. FA 이적 첫해부터 4년 계약 내내 클럽하우스의 리더 역할을 도맡고 있다. 손승락은 “올해도 계속 투수조장을 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장이 된 (손)아섭이가 부탁을 했다. 마다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후배들은 그에게 늘 고마움을 전한다. 선발투수 김원중도 “어떤 것도 먼저 강요하신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다가가서 여쭙보면 세세히 설명해주신다”고 그의 리더십을 설명했다.

손승락은 롯데 소속으로 뛴 지난 3년간 그라운드 안팎에서 베테랑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가득하다. 그가 몸담은 동안 롯데의 최고 성적은 준플레이오프 진출이다. 우승을 목표로 손승락을 비롯한 수많은 FA를 영입한 롯데로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손승락이지만, 그는 화살을 자신에게 돌렸다.

“4년간 매년 우승만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우승에는 운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실력이 없으면 운도 없다.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는 팀이 우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고참으로서 후배들을 조금 더 독려할 생각이다.”

올 시즌을 마치면 두 번째 FA가 된다. 하지만 그는 “내 기록보다 팀의 방향, V3가 더 중요하다. 예비 FA라고 마음가짐이 바뀌진 않는다. 나에게는 매년이 소중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손승락은 2019년에도 롯데의 투수조장을 맡았다. 팀의 든든한 마무리투수이자 베테랑인 그는 2016년부터 투수조장을 맡아왔다. 사진제공 | 롯데자이언츠

1년 전 데자뷰? 공포 얼어붙은 FA 시장

하피·마차도·카이클·킴브럴 등
미계약 속출…침체된 시장 반영



2019시즌을 향한 메이저리그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구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2일(한국시간) 오 클랜드 어슬레틱스 배터리가 가장 먼저 스프링캠프에 입소함에 따라 정규시즌 개막일에 맞춰진 빅리그의 시계바늘도 마침내 돌기 시작했다. 늘 이맘때면 설렘과 흥분이 교차한다.

그러나 아직도 스토브리그의 한기 속에 갇혀 사는 이들도 적지 않다. 1년 전처럼 메이저리그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닥쳤고, 저물급 선수들마저 여전히 행선지를 찾고 있다. 티켓 파워까지 갖춘 스타 외야수 브라이스 하피(27), 거포 유격수 매니 마차도(27), 사이영상 수상 경력의 선발투수 맬리스 카이클(31), 특급 마무리투수 크레이그 킴브럴(31)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언제쯤 계약할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지난해에도 스프링캠프 소집일을 전후로, 심지어는 3월초야 계약 소식을 전하며 굶주린 FA들이 많았다. 5건의 가

장 큰 계약들이 모두 2월 이후 성사됐다.

총액 기준으로 2017~2018 스토브리그 최대 규모 계약을 기록한 1루수 에릭 호스머(30)는 지난해 2월 20일 8년 1억 4400만 달러(한화 약 1620억 원)에 샌디 에이고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었다. 그보다 6일 앞서 시카고 컵스와 6년 1억 2600만 달러(약 1418억 원)에 사인한 일본인 투수 다쓰비시 유(33)를 능가하는 최고액이었다. 이어 2월 26일 외야수 로렌조 케인(33)이 밀워키 브루어스와 5년 8000만 달러(약 900억 원), 이튿날 외야수 JD 마르티네스(32)가 보스턴 레드삭스와 5년 1억1000만 달러(약 1238억 원)에 각각 계약했다. 투수 제이크 아리에타(33)는 시범경기도 중반으로 접어든 3월

13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3년 7500만 달러(약 844억 원)에 합의했다.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스토브리그의 한파에 메이저리그 선수노조와 슈퍼 에이전트들은 구단들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치세의 영향으로 페이를 감축에 혈안이 된 나머지 구단들이 ‘담합’도 불사하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물론 이 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다. 그러나 총액 3억 달러를 넘어 4억 달러 시대를 열 유력 후보로 여겨졌던 하피와 마차도의 계약이 의외로 더딘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다. 빅마켓이든 스몰마켓이든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방향성은 ‘합리적 지출’ 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